

## 아버지의 집 안에서 —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 안에서 삶

2/17 월요일

### 아침의 누림

#### 요 14:1-2

1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

2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딤펢전 3: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요 2:16**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십시오.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시니,

#### 엢 2:21-22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벧전 2: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

요한복은 14 장 1 절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 요점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분명 주님도 믿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사실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요한복음 14 장 1 절에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 다르다는 점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갔는가? ... 이 장의 기본 사상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도와시고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객관적이지만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이런 주관적인 믿음이다. 사실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또한 내 안으로 믿어 들어와야 합니다.” ‘안으로’라는 뜻의 영어 전치사 ‘인투(into)’는 매우 중요하다. ... 우리는 이 전치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을 믿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주관적인 믿음의 문제이다. 이 장의 중심 사상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9, 85-8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요한복음 14 장 2 절에 언급된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어구는 요한복음에서 두 번 쓰였다. 이 어구는 2 장

16 절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거기서 이 어구는 분명 성전, 곧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가리킨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에 대한 예표이고 상징인데(2:21), ... 예수님의 몸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대되었다. ... 2 장 16 절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은 이 땅 위의 성전을 가리킨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나타낸다. 성전이 예수님의 몸에 대한 예표이므로, 예수님의 몸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1:14), 성전이다.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어구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2 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 14 장 2 절에 있는 이 어구가 2 장 16 절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어구와 다른 의미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이 어구가 같은 복음서에서 두 번째로 사용될 때, 그 정의는 첫 번째로 사용되었을 때의 정의와 동일한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14 장에 있는 ‘아버지의 집’ 또한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뜻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셋째 하늘을 의미할 수 없다. 2 장에서 아버지의 집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고, 14 장에서도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임이 분명하다. ... 이제 우리는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어구에 대한 합당한 해석을 갖게 되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이다.

서신서들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계시가 완전히 발전된다. 디모데전서 3 장 15 절은 교회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임을 밝혀 준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고린도전서 3 장 16 절은 하나의 온전한 실체인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2 장 5 절은

살아 있는 돌들이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고 말한다. ... 더 나아가, 히브리서 3장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며, 에베소서 2 장 21 절과 22 절은 믿는 이들이 하늘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신약 전체는,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요한복음과 신약 전체에서 아버지의 집은 하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자 처소인 교회이다.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9, 87-8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9-30

## 2/18 화요일

### 아침의 누림

**고전 3:16**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전 12:27**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마 16: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롬 12: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고전 3:16**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 엡 1:22-23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분의 총만입니다.

**엡 5:30**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요 14:2). 요한복음 14 장 2 절에서 ‘거할 곳(abodes)’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23 절에서 ‘거처’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하며, 이 단어의 복수형이다. ‘거할 곳’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할 곳이 많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고전 3:16-17)인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롬 12:5)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주님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가 하나의 거처이다. 많은 거할 곳이 몸의 많은 지체라는 사실은 주님과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4 장 23 절에 의해 충분히 증명된다. ...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건축물 안의 거처들이다.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거처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0, 91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4 장 2 절에서 ‘내가 가서’라는 말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시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심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16 장 18 절에 언급된 교회의 건축을 가리키는데, 거기에서 주님은 “내가 ...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요한복음 14 장 2 절에서 주님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 ... 주님께는 오직 하나의 일만 있으시다. ... 우리가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함께 놓고 본다면, 한 곳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 한 곳을 예비하러 가셔야 했다. 이것의 최종 결과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일 것이다(계 21:2). 주님은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계신다.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 ...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건축, 곧 구속된 백성으로 이루어진 살아 있는 처소의 건축이 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한 곳을 예비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길을 여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 이것이 요한복음 14 장의 중심 사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실 것이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분리하는 모든 요소, 곧 죄와 죄들과 세상과 마귀와 죽음과 육체와 자아와 옛사람이라는 장애물들이 반드시 치워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릴 수 있고, 단지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일, 몇 가지 예비가 필요했다. 주님은 예비하시는 일을 하셔야만 했다. 그분은 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위해 하늘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셔야 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주님의 죽음으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 그분은 죄와 죄들과 세상과 이 세상의 통치자와 육체와 자아와 옛사람과 심지어 죽음을 처리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도록 죽음과 부활로 길을 닦으셨고 한 곳을 예비하셨다.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길을 뚫고 예비하셨으며, 어떤 사람이라도 즉시 하나님 안으로 이끌 수 있는 고속 도로를 닦아 놓으셨다. 주님은 모든 산을 치우셨고, 모든 간격을 메꾸셨으며, 고속 도로를 닦으셨고, 모든 통행료를 지불하셨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요금은 없다. 우리는 곧장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은 죽음과 부활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입지도 예비하셨다. …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믿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입지를 갖는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외쳐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입지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입지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저를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오,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일로 인해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저를 쫓아내실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그러한 견고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간증할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와 하나님

안에서의 입지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0, 92-9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1-32

## 2/19 수요일

### 아침의 누림

#### 요 14:3, 17-19, 20

**3**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19**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살므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 20: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

주님의 구속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한 곳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구속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안에 한 곳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사상은 최고 수준의 사상이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려고, 즉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안에 한 곳을 예비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 우리가 구속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되는지 나에게 말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 심지어 요한의 첫번째 서신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계시한다(요일 4:13). 신약 전체에 걸쳐서 그 중심 사상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처이시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거처가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우리와 하나님은 상호 거처이다. …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분께서 그분의 구속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한 곳을 예비하고 계셨다.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었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 한 곳을 갖고 있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0, 95-96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가심은 그분의 처소를 건축하시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입지를 마련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셨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입지가 확대된 후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입지가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입지, 곧 한 곳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곳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신 것은 곧 제자들을 위해 그분의 몸 안에 한 곳을 예비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요한복음 14 장 3 절은 ...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 곧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요 14:18, 28) 오시는 것이었음을 증명한다. 여기의 시제는 영어에서 매우 생소한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가심이 그분의 오심이었으며, 그분은 가심으로 오고 계셨다는 의미이다. ... 주님의 의도는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다. 주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요 1:14) 제자들 가운데 계셨지만, 육체 안에 계시는 동안 그들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었다. 14 장 17 절부터 20 절까지에 계시된 대로, 주님은 육체에서 영으로 변형되심으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시어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는 또 하나의 단계를 거치셔야 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을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넣어 넣으셨다(20:19-22). 그러므로 그분의 가심은 바로 그분의 오심이였다.

주님은 “내가 ...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요 14:3)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장소로 영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 안으로 영접하신다는 의미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실 때에, 요한복음 14 장 20 절에서

‘여러분이 내 안에’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제자들을 자신 안으로 넣으셨다.

요한복음 14 장 3 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가? 아니다.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신다. 그분은 제자들도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17:21).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므로, 그분은 우리도 아버지 안으로 이끄실 것이다. ...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셨다.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다. ... 죽과 부활 이전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모든 제자도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것과 같다. 그때에 주님은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주님 자신은 살아 있는 길이시며, 이 길을 통해 사람을 살아 있는 처소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신다. 우리처럼 제자들도 처소와 길이 모두 인격이 아닌 어떤 장 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0, 96-9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3 장*

## 2/20 목요일

### 아침의 누림

요 14:14, 15-16, 21, 23

14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습니다.

15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것입니다.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21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 계 21:2-3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

요한복음 14 장은 주로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 안에서 함께 건축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어떻게 분배하시는지

게시해 준다. 14 장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계신다는 것과, 바로 이 하나님과 믿는 이들이 함께 건축되어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준다. 또한 이 건축물이 결국 상호 거처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밝혀 준다. 이것은 15장 4 절에서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위한 기초가 된다. 이 절은 상호 거함에 대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2, 11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4 장 23 절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그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두 가지 표현인 ‘-와 함께 거하다’와 ‘-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다’는 차이가 있다. ... 언어적으로 볼 때, “아버지와 내가 가서 그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내가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어떤 면에서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가? 아버지와 아들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분들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 믿는 이가 그분들께 거처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우리가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함으로써 그와 우리는 거할 곳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는 그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죄와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과 육체를 위한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쫓겨났다.

여러분은 전에 이런 체험이 없었는가? 여러분 깊은 속에서 주 예수님을 향한 달콤한 감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므로,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는 나의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님!”이라고 말했다. 아마 여러분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아멘’이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즉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여러분은 아주 많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게 되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그분 자신으로 가득 채우고 계신다는 느낌과 여러분이 그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었고,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셨다. 여러분은 그분의 거처였고, 그분은 여러분의 거처이셨다. ... 우리는 종일 이런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과 함께 서로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그분의 처소를 건축하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고 주님께서 가장 총만하게 자신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달콤한 느낌이 있을 때마다, 또한 자신이 모든 믿는 이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가졌다. 그때 여러분이 깨달은 바에 따라, 여러분은 어떤 믿는 이와도 문제가 없었고 모든 형제자매의 잘못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믿는 이들과 하나 되고자 하는

갈망이다. ... 오늘날 이 땅 위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런 체험에 달려 있다. 가령 두 형제가 서로 문제가 있다고 하자. 무엇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쉽지 않다. 어느 날 그 둘은 모두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깊고도 달콤하게 감상하게 된다. 주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 즉시 그들은 둘 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고 문제는 해결된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신성한 건축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다. 그것은 조직이나 규제나 외적인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문제이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2, 126-12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윌트니스 리 전집, 1982년, 2 권, 요한의 글에 있는 성막과 제물들의 성취, 36-45 장

## 2/21 금요일

### 아침의 누림

**살전 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롬 11:36**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요 1:12-13**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13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요 5:26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 안에 생명이 있으신 것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 20:17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 롬 8:15-16

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

데살로니가전서는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계시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 장 1 절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생명 관계를 보여 준다. … 하나님은 교회 사람들의 아버지이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그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의 아버지이 시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그를 “대통령,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 우리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시민임을 보여 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통령,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여러분이 그와 생명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가리킬 것이다. 동일한 원칙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창조주 만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56-57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아버지는 근원이시다. 그분은 기원자이시고, 창시자이시며, 계획자이시고, 설계자이시다. … 주 예수님은 “나는 그분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요 7:29)라고 말씀하셨다. 이 간략한 말씀은 아버지께서 근원이심을 가리킨다.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요한복음 13 장 3 절 또한 아버지께서 근원이심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아버지는 계획자이시며, 아들을 보내시어 아버지의 계획을 수행하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기원자이시고 창시자이시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오시고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받으셨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2 년, 2 권, 요한의 글에 있는 성막과 제물들의 성취, 42 장, 535-536 쪽)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곧 유일한 창시자이심을 의미한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보냄 받은 분이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요 5:19) 이 절은 반드시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 태초에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창 1:1).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아버지이심을 보여 주시는 그날은 복된 날일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셨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체험이다. 아브라함의 체험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으로 인도하신 분이셨다(창 12:1-5).

만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자신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참으로 모르며,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다. 이러한 종류의 인식은 교리에서 얻은 인식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시인할 정도로 이끌린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하나님, 저는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자 또한 저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이 없다면 저는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였다. …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공과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분께서 아버지이시며, 또한 모든 것의 창시자이시다.(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5 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1 장, 14-1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5 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1 장*

2/22 토요일

**아침의 누림****요 17:21, 23**

21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4:6, 10-11**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11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십시오.

**엡 3:16-19**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결되신 영이라는 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머물면서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한다.

모든 믿는 이들은 아버지의 영광(표현)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아들 안에 거함으로써 아들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요 15:4-5, 8).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같이,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모두 안에 있어야 한다. 아들께서 믿는 이들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는 것은 믿는 이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요 17:21, 23). 우리의 하나는 반드시 삼일 하나님의 셋 가운데의 하나와 같아야 한다. 사실상 믿는 이들의 하나는 삼일 하나님의 하나이다. 우리는 바로 삼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3 장, 153-15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4 장부터 16 장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고, 그런 다음 17 장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주님은 결론을 맺는 기도에서 우리의 하나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와 완결되신 영과 함께해야 함을 보여 주셨다. 이 참된 하나는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이다. 이러한 하나를 갖기 위해 믿는 이들은 반드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이 영역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믿는 이들 안에 계시며, 믿는 이들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와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삼일 하나님과 하나임을 의미한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3 장, 154 쪽)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의 합병체이시다(요 14:10-11).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상호 내재하심으로 합병되어 계신다. 이것에 관하여 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요 14:10 상)라고 말씀하셨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는 아들 안에 있으며, 아들은 우리 안에 계시고, 실재의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합병체이다.

아버지의 집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이다. 아버지의 집은 하나의 구성체일 뿐 아니라 합병체이다.

이러한 건축의 방면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에 의해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된 믿는 이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믿는 이들을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총만(표현)에 이르게 하신다(엡 3:16-19).

아버지의 집의 목적은 우선 보이지 않하시고 비밀하신 삼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교회를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딤후 3:15-16).

아버지의 집의 두 번째 목적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만족과 안식을 위한 것이다.

아버지의 집의 목적은 또한 영원하시고 목적이 있으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여 그분의 영원한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심으로, 그분 자신의 영원한 확장과 표현을 얻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은 결국 그분의 영원한 목표인 새 예루살렘이 되어 그분의 영원한 확장과 표현을 가져올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3 장, 36 쪽, 4 장, 42, 44-4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3-6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권, 메시지 29

**찬송: 52 (英) 아버지 당신만을  
경배하고 (中:49)**

1 아버지 당신만을 경배하고 존경하며 자녀들 함께 모여 한 맘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집에 인도한 귀한 은혜 아들과 함께 아버지 가까이해.

2 사랑을 아는 이는 다 알리라 이 큰 사랑 아버지 깊은 사랑 아들 통해 확증되었네 아버지 사랑 아는 이 다 이끌어 아들은 아버지께 찬송합니다.

3 아들과 함께 우리 찬송할 때 아버지는 사랑의 소리 듣고 기뻐하며 만족하시네 창세전부터 아들 사랑하셨네 우리로 아들 동반자 되게 했네.

**2/23 주일**

아침의 누림

**요 15:1-13**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2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이 손질하십니다.  
3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 준 말로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졌으니,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웁니다.

7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8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는 영광스럽게 되시고,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10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여러분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11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총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2 나의 계명은 이것인데, 곧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3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